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4강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여행은 '심표'... 자연 그대로 힐링 전기

느릿함이 미덕인 올레길 고향서 진짜 여행 보여줘 인위적 시설을 설치 반대

“그 높은 히말라야의 16좌를 완등한 엄홍길 대장이 올레길에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연신 감탄사를 내더라고요. ‘걷기 고수’에게도 느릿함이 미덕인 올레길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의 세 번째 강사였던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언급하며 시작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의 강의는 자신이 ‘길’을 만들기 위해 직장을 떠났던 과정부터 시작됐다.

서 이사장은 “나도 한때는 일 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직장인”이었다고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서 이사장은 주간지 ‘시사저널’의 창간 멤버이자,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첫 여성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만 25년을 보냈다.

서 이사장은 “편집국장을 하던 시절, 후배가 1주일짜리 휴가계획서를 가져오면 ‘일 것 다 쉬면서 일은 어떻게 하냐고 질책하던 때가 있었다’며 “후배들을 하도 괴롭혀 별명이 ‘마녀’였을 정도로 일에 빠져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사회적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불안감에 오히려 불행을 느꼈다”며 “인생의 배터리가 눈곱 하나 남았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정신적·체력적으로 힘든 시절”이었다고 과거를 설명했다.

“행복하지 않았다”던 서 이사장은 나이가 되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직서를 냈다. 다른 운동은 하지 않아도 ‘걷기’만큼 즐겼다는 그에게 책에서 읽은 ‘스페인인의 데포르스텔라’ 도보 여행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서 이사장은 “작심하고 떠난 스페인에서 800km를 36일에 걸쳐 걸었다”며 “그 시골길에서 구름이 눈에 들어왔고, 옥수수밭이 보이더라. 20일이 지나자 고향 제주에서 어릴 적 소풍갔던 길이 떠오르면서 ‘제주에는 왜 이런 길이 없을까’ 푸념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행은 일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일에 치여 여행마저 ‘빨리빨리’ 하는 것 아닌가, 내 고향 제주에서 진짜 여행이 뭔지, 휴식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보여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지난 9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제주올레 길을 만들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는 길을 내겠다고 작정했다”고 밝혔다. “길을 내기 위해 다시 찾은 고향에 왔지만 사업적인 확신은 없었다고 서 이사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의 풍경에 대한 자신감은 넘쳤다. 단돈 900만원을 들고 첫 길을 냈다. 길의 이름은 ‘올레길’.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 길까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서 이사장은 사라진 길은 불러내고, 끊어진 길은 이어주고, 돌과 풀, 모래 등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자연으로 길을 이었다. 주변에서도 도왔다. 군인들은 돌을 옮겼고, 주민들은 과거의 길을 알려줬다.

서 이사장은 “지역의 길을 건다는 것은 고대와 근대, 현대사를 한꺼번에 관통하는 것”이라며 “이전의 관광객은 제주도만 단순히 스쳐갔지만, 올레길을 걸으면 서 역사의 속살을 보고, 알려지지 않은 수십 개의 옛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뜻은 같았다. 길을 내니 주변 마을 주

민들은 작품을 만들어 길 옆에 전시했고, 그렇게 ‘의자마을’도 탄생했다. 단순히 관광지만 찾는 관광객은 길을 걸으며 그 자리에서 물건을 샀고, 올레길은 지역경제까지 살렸다. 서귀포 상설시장은 관광객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매일올레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 이사장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마인드’로는 벌일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연 그대로의 길, 목적을 위해 걷는 길이 아닌 있던 것 그대로의 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길을 모방해 앞다퉈 길을 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 아쉬운 마음도 전했다. 서 이사장은 “올레길은 최대한 자연을 배려하는 것이 원칙인데, 견학을 온 공무원들은 목재데크나 인위적인 시설에만 집착하더라”며 “길을 가지고 또 다른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 재정자립도 16.3% 전국 최하위

시·군·구 중 강진 가장 낮아... 전국 지자체 자립도 51.1% 역대 최약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7.3%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전남도 분청과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국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5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7%였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도 분청(16.3%) 꼴등이었고, 일선 시·군·구 중에서는 강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남도 분청은 16.3%를 기록해 최근 5년간(10.4%~14.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았다. 이는 지방 세입으로 인건비도 못 주는 수준이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강진은 지난해

10%에서 7.3%로 하락하는 등 10%대 미만도 포함(7.9%), 신안(8.4%), 해남(8.5%), 곡성(8.6%), 구례·장흥(9.5%) 7곳에 달했다.

또 고흥·보성(10.2%), 완도(10.8%), 무안·진도(11.7%), 영광(12.2%), 장성(12.3%), 담양(17%), 나주(18.2%) 등지도 최근 5년간 10%대에 머물고 있었고 영광(20.3%)과 화순(24.5%)도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순천(21.8%), 목포(22.2%), 여수(31.9%), 광양(35.3%) 등 시 단위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한편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51.1%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인천이 64.6%, 울산이 62.7%, 경기도가 60.1%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40.1%에 머물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전남도	2009	2011	2013
합계	19.4	20.7	21.7
목포시	23.8	27.8	22.2
여수시	30.3	28.3	31.9
순천시	19.8	20.6	21.8
나주시	15.1	15	18.2
광양시	46.3	40	35.3
담양군	15.7	16.4	17
곡성군	12	9.4	8.6
구례군	9.3	11	9.5
고흥군	8.6	8.8	10.2
보성군	8.2	11.1	10.2
화순군	24.6	21.6	24.5
장흥군	9.8	9.9	9.5
강진군	8.6	9.3	7.3
해남군	12	9.7	8.5
영광군	15	21	20.3
무안군	12	11	11.7
함평군	14.1	8.1	7.9
영광군	15.6	10.4	12.2
장성군	12.3	10.7	12.3
완도군	7.2	9.6	10.8
진도군	10.6	11.7	11.7
신안군	8	7.6	8.4

광주시 기초노령연금 2.3% 인상... 지급대상자 늘어

월 최고, 단독 9만6800원·부부 15만4900원

광주시는 “4월 2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3%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단독노인은 월 최고 9만 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되고, 노인부부 가구도 월 최고 15만 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3500원 인상된다.

지급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단독노

인인 월소득 88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소득 132만8000원 이하다. 근로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으면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2720만원(부부가구는 최대 4억4672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노인은 소득액이 월 128만원 이하, 부부노인은 월 222만8000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9만8000여명에서 올 3월 말 현재 9만9000여명으로 1000여명이 늘었다.

광주시 김에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전년보다 선정조건이 완화돼 연말까지 대상자가 10만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자치단체도 인상기준은 동일하다”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모두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juck@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 무인케도차 사업 ‘특혜’ 논란

감사원 ‘특정 사업자 선정후 민자유치계획 공고’ 지적

순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 무인케도차(PRT)가 안정성 논란 끝에 박람회 기간 운행 계획이 취소(광주일보 4월 4일자 2면)된 데 이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순천만무인케도차 시민 대책위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해 대책위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결과, PRT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를 먼저 선정하 뒤 나중에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협약에 순천만 접근 교통수단을 무인 케도차로 제한, 순천만 관광객들이 다른 교통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무인케도차 사업 논란이 일자 환경운동연합, YMCA, 농민회, 진보연대, 민주노동 등 순천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포스코가 30년간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610억원을 투자한 사업인 무인케도차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으로 박람회

장~순천만 사이 4.6km 구간에 1량 6개 좌석을 갖춘 총 40대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차량 납품 지연과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시가 지난 3일 운영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本社人事

- ▲金東湖: 동부취재본부 구례주재 국장
- ▲陰昌榮: 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
- ▲張宰溶: 전북취재본부 부안주재

(4월 11일자)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런던역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권(2중) 버블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합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이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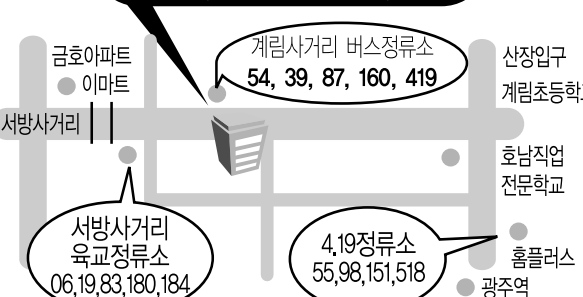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릅)모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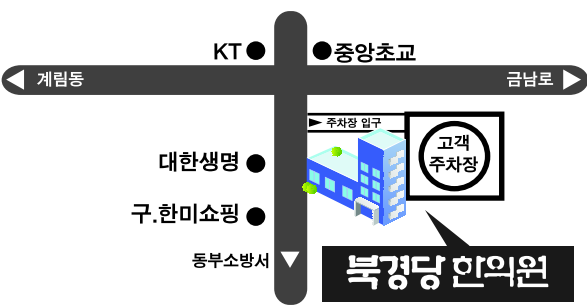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약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관 제080130-경-26호